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공동체운영위원회 정기회의가 오후 2시에 자연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사랑방공동체학교 여름방학 일정 안내입니다.  
꾸러기학교 7월 16일 ~ 8월20일  
어린이학교 7월 16일 ~ 8월20일  
멋쟁이학교 7월 14일 ~ 8월22일
- 지역별사랑방 전반기 모임은 18일(금)입니다.  
방별로 전반기 방 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여름공동체 생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주방팀(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 감사 )  
박무상 집사 ( 생일 감사 )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28 호

2025년 7월 13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계이름: 도레미파솔라시도,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로 박자, 가락, 목소리(음성)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화를 이루거나 결합해서 나타내는 음악이 있습니다. 즐겁고 흥겨울 때, 위로가 필요할 때, 혼자여서 외울 때, 무서울 때, 일을 하며 힘을 내야 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음악을 듣습니다.

가장 일찍 듣는 음악은 아이들을 재울 때 어머니들이 흥얼거리며 불러주었던 자장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 이야기를 담은 노래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래와 음악은 대부분 노래를 듣고 익히지만 이것을 기록에 남겨 다른 사람도 배워서 따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궁상각치우' 5음계를 사용 했지만 현재에는 '도레미파솔라시'의 7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이름의 시작을 찾아보니 '도레미파솔라시' 7음계의 어원은 이탈리아 음악이론가 귀도 다레초(Guido d'Arezzo)가 11세기경 창안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성가가 6음계였는데 17세기경 음계가 옥타브로 확장되면서 7번째 음인 시(Si)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음이 힘든 Ut(우트)를 도(Do)로 바꾸었습니다. 7음계의 유래는 찬송가였습니다. 성가대 연습을 위해서 음절 체계를 도입해서 찬미가 <당신의 종들이 Ut queant laxis>의 첫 음절을 각 음에 붙여서 부른 곡입니다.

가사의 내용과 뜻은 이렇습니다.

Ut Queant Laxis 느슨한 목소리로

Rexonare fibris 울려 퍼뜨릴 수 있도록

Mira gestorum 당신 기적의 행적을

Famuli Tuorum 당신의 가족(제자)들이

Solve polluti 불결함을 없애주소서

Labii reatum 입술의 때와

Sancte Iohannes 성 요한이여

계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Do) : Dominus "하나님"

레(Re) : Resonare "하나님의 음성, 울림"

미(Mi) : Miraculum "하나님의 기적"

파 (Fa) Famuli "하나님의 가족"

솔 (Sol) Solve "구원, 하나님사랑"

라 (La) Labii "사도, 입술"

시 (Si) Santus "거룩"

우리는 계이름이 갖고 있는 하나님, 음성, 기적, 가족, 구원, 입술, 거룩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음들이 모여 화음을 이루고 많은 사람이 모여 한 목소리로 화음을 맞추었을 때, 부르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 모두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있습니다.

찬송가와 찬양, 노래를 부르거나 들을 때, 계이름의 시작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사람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 한주간의 말씀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이용신 장로

찬송 : 288, 365 / 540

기도 : 최연우 집사

성경 : 민수기 19장

제목 :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 정결함을 이루자

1. 내용 : 모든 조건이 정결해야 한다.

< 문단구분 >

- 1-10절 온전한 제물로 정결케 하는 예식때 사용하는 물을 만들다
- 11-20절 부정하게 된 사람은 스스로 정결케 해야 한다
- 21-22절 정결케 하는 것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제이다

2. 의미 : 공동체를 위해서 정결케 해야 한다

- 1)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해야 질서가 유지된다.
- 2) 부정하게 되었지만,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않은 사람은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다.
- 3) 어느 누구도 잘못할 수 있다.

3. 적용 : 공동체에서 잘못된 것은 인정한다

- 1)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가 삶에 집중한다.
- 2)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교만, 욕심, 성급함을 경계한다.
- 3) 잘못된 죄에 대해서, 매일 회개한다.

## “나 다음”

요즘 SNS나 유튜브에서 중장년층의 삶을 조명하는 콘텐츠를 자주 접합니다. '신중년', '나다음', '인생 2막'을 주제로 각자가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마다의 글, 영상, 이미지에 때로는 공감하고,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동안 사회적 관계, 의무, 역할 중심이었던 인생의 챕터를 지나,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씩 벗어나 인생2막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흐름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인생2막”, “나다음?” “어떻게 해야 나답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는 많은 역할과 책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정과 직장, 공동체와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에 자신을 맞추며, 충실히 살아내려 애썼습니다. 분명 그 길도 가치 있었고, 성실하게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사이, 내가 원하는 나다음의 모습,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내가 좋아했던 것들과 '나다운 삶'은 조금씩 희미해져 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앞으로도 그렇게 큰 변화는 있을 것 같지 않고, 딱히 명확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어찌면 지금은, 진짜 “나로서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전환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다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만족이 아니라,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따라가지 않고, 불필요한 관계나 역할에서 자유로워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고, 나만의 속도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호기심을 다시 갖고 그 호기심을 다시금 풀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얼마 전 참여했던 사랑방 연극은 잊고 있었던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었고, “나다음”의 문을 살짝 열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 내가 어릴 적 이런 걸 좋아 했었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 순간은 단지 무대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익숙한 역할 속에 가려진 나다음의 솔직하고 진실하게 표현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은 잊고 있던 예전의 나를 만나는, 짧았지만 깊은 감동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나 다음이란 특별하거나 그럴싸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으신 이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존중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있던 기쁨과 진심을 다시 꺼내어,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표현해보는 용기 - 그것이야말로 나의 인생 2막을 여는 첫 걸음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고 조언을 들으며, 더 깊이 나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나다음”의 참된 모습을 발견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사랑방 장미라 집사

## 주일공동예배

오전 11시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편 100 : 3-4  
26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8 : 1-2

212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마가복음 6 : 39-52 인도자  
비 준비하시니 비움사랑방  
“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 정재훈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30

410(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청혜라 한미선 / 봉헌위원 : 이어람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친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 공동기도문

공훈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책망.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수군거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수에 집중하느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무더진 마음.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 모두 제자들의 실수가 후반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이 무디어진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무디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반복되는 것은 권태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깨닫지 못함. 예수님을 문제의 해결사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베푸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훈함이 넘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 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배워야 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하경임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대부도로 여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화요일은 너무 더워서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벅스리움, 시화조력문화관, 달전망대를 둘러보고 숙소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방아머리해수욕장에 갔습니다. 별이 다가왔지만 바람이 불어 살짝살짝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갯벌을 재빨리 파고드는 작은 게들을 더 빠른 꾸러기 손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갯지렁이, 갯고동, 소라게, 맛조개, 동죽, 작은 물고기, 갈매기를 만났습니다. 채집통에 모아온 것들을 집에 데려가 키우고 싶은 마음을 애써 누르며 갯벌로 돌려보냈습니다. 오후에는 유리섬박물관에서 멋진 유리공예품들을 보고 유리공예시연도 보았습니다. 해양안전체험관을 둘러보고 커피박을 반죽해서 모양틀로 찍어 방향제를 만들었습니다. 방아머리해수욕장에 다시 가서 바닷물이 다 들어온 것을 보며 모래놀이도 잠시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안산어촌민속박물관에서 대부도 근해에 사는 물고기, 갯가생물들, 어로에 쓰는 도구 등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식사로 두 손을 열심히 써서 바지락칼국수를 먹었습니다.

꾸러기들은 새로운 것을 보고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함께 잠드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 교사 : 정승희 >

### 어린이학교

무척 더운 한 주를 보내며 이제 여름방학을 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학기를 마무리 하며 7월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출판도시가 있는 경기도 파주에 가서 예쁜 북카페에 앉아 책도 읽고 우리만의 영화관에서 영화도 관람했습니다. 바닥부터 찬장까지 책이 꽂혀있는 '지혜의숲'과 보리 어린이 책놀이터도 방문하여 자유롭게 독서하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더위를 피해 책의 세계로 들어가니 이만한 힐링이 없습니다.

어린이학교에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 학부모 면담 중에 있습니다. 면담은 준비하는 교사나 면담에 참여하는 부모님 모두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를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기에 때로는 기분이 좋은 이야기도 때로는 마음이 아픈 이야기도 함께 나누며 가정과 학교가 믿고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린이학교는 이번주 수요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남은 면담과 1학기도 잘 마무리하고 건강한 방학을 맞게 되길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정다운 >

### 멋쟁이학교

지난 토요일에 종강발표회를 하면서, 멋쟁이들은 월요일 저녁에 등교를 했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많은 멋쟁이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종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흥가분한 느낌으로 함께 모여 경주의 바닷가로 떠나고 나니, 대단히 좋은 날씨에 서로 시간 가는줄 모르고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다른 게임이 없이 바닷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멋쟁이들은 너무나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소에서 스스로 만든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동궁과 월지를 다녀왔습니다. 하얗게 뜬 달이 연못에 비춰지는 동궁의 야경은, 사진을 찍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도록 멋졌습니다.

둘째날 오전에는 상금을 걸고서 치열했던 레크레이션이 벌어졌고, 오후에는 다들 고대하던 경주월드로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손님이 별로 없어서, 타고 싶은 것을 타고 싶은 만큼 실컷 즐길 수 있었습니다. 어찌나 탔는지, 속이 메스거리는 멋쟁이들도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교장선생님 가정이 찾아오신 와중에, 서로에게 다가가는 공동체훈련과 마치고 야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셋째날에는 아침 일찍 체크아웃을 하고 모두가 기다리던 에어돔 축구장을 갔습니다. 장장 4시간동안 많은 멋쟁이들이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 직후엔 사우나를 들렀다가, 천마총과 황리단길에 있는 대릉원으로 가서 학년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로한 몸을 이끌고 학교에 돌아와서는, 다시 날짜가 바뀌어 여행 전반을 마무리하는 피드백과 대청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층 업그레이드 된 멋쟁이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과 부회장으로 신에서 멋쟁이와 이기쁨 멋쟁이가 선출되었습니다. 다음 학기의 멋쟁이 학생회가 무척 기대됩니다. 이제 는 학부모 면담기간입니다. 집에서는 알기 어려운 성장과 성숙의 모습들을, 기쁨으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방학의 기간이기를, 함께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 사랑방공동체 방문기

이번 사랑방공동체 방문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태일 목사님의 강의는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고민하며 살아내신 공동체 신학의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나라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 키워드-복음, 하나님 나라, 교회,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 신앙의 본질과 방향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깊은 메시지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유독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단순히 사람 간의 교제를 넘어서, 성령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이끄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삶의 방식,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곧 공동체의 삶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랑방공동체의 멋쟁이학교 아이들을 보며 그 생각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 아이들은 ‘특별한’ 아이들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건강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억압되지 않고 존중받으며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교회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함께 씨 뿌기 내기를 하며 웃고, 축구와 농구를 하며 땀을 흘리던 시간은 저에게 단순한 놀이를 넘어선 감동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저를 스스럼없이 환대하고 함께 어울려주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따뜻하게 사람을 품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함께 나눈 식사 시간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 앞에서 서로 마주 앉아 나눈 따뜻한 대화, 잠시 멈추었던 조용한 시간 속에서 떠오른 많은 생각들. 한 끼 식사 속에 담긴 수고와 은혜, 그리고 여전히 배고픔을 견디는 이들에 대한 마음까지도 새삼스럽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제 삶과 신앙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깊은 여정이었습니다. 짧았지만, 마치 오래 쉬다 온 것 같은 평안이 있었고, 다시 꼭 찾고 싶은 마음이 진심으로 남습니다.

교회 밖 현장실천 후기 중에서

##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191장, 545장

성 경 : 빌립보서 4장 4절~7절

말 씬 :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미국 텍사스 지역을 위해>

갑작스런 폭우와 강물의 범람으로 많은 사상자와 실종자가 생긴 미국 텍사스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구조와 수색작업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새음교회, 새음학교>

7월2일 오후 새음교회 본당에 난 불로 인해 새음교회와 새음학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폭염 속에 공동체의 노약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여행 중에 있는 꾸러기학교와 멋쟁이학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정말 뜨겁다는 말이 맞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불볕 더위에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도 밭일은 계속되어 물을 대 주고 풀을 뽑아 주었습니다. 옥수수가 익어가고 깨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각 학교의 선생님들인 공동식구들은 학기말을 맞아 학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여름공동체생활을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름 일정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 장영미 전도사 >